

지역 매 아 리

교월동 생활개선회, 성금 50만원 기탁

김제시 교월동 생활개선회(회장 김광순)는 17일 교월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뜻깊게 사용해 달라며 희망2019 나눔캠페인 이웃돕기성금 50만원을 전달했다.

교월동 생활개선회는 관내 다문화가정 및 조손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장학금 기탁은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꾸준히 봉사 활동을 하는 등 지역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매년 실천하고 있다.

김광순 생활개선회장은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주위 어려운 이웃에 조금이나마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앞으로도 작은 보탬이라도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통해 지역 사회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에 정우근 교월동장은 "따뜻함이 간절해지는 연말연시에 매년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행복한 교월공동체를 만드는데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희망2019 나눔캠페인은 '사랑의열매 20년, 나눔으로 행복한 나라'라는 슬로건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73일간 진행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의정비 인상안 철회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성명서 발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과도한 의정비 인상안을 철회하고, 공청회 개최를 취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완주군의회 의정비를 21.15% 인상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다른 시·군의 의정비가 공무원 보수인상을 수준인 2.6% 정도로 결정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인상률이다. 전북 이외의 지역과 비교해도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다”며 철회를 강력 주장했다.

특히 “완주군민들이 완주군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만족하고 더욱 열심히 일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많은 의정비를 지급하겠다고 한다면 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주민들이 과연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정비 인상에 공감하고 있는지는 것이다”며 “게다가 의정비 인상의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 의정비 인상을 전제하고 이를 위해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의견수렴

과정까지 형식상의 절차를 밟아붙이는데 급급한 것처럼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를 망라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완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언론·법조·시민사회 추천인사가 하나도 없어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성인지 의문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의정비 결정 시 필수적으로 고려할 사항으로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그리고 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완주군의 경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 1인당 인구는 9,533명에서 8,725명으로 줄었고, 재정자립도는 2014년 34.28%에서 2018년 24.03%로 하락했다”며 “의정활동 실적 역시 전년에 비해 크게 높아

졌다거나 다른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심의위원회가 의정비를 크게 높인 것에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시민연대는 “지금처럼 지역의 경제가 좋지 않고 주민들의 삶도 어려운 상황에서 변변한 이유도 없이 의정비만 잔뜩 올리겠다는 것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면 먼저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쳐며 명분을 쌓고 업무추진이나 의회 운영경비 등 지출의 투명한 공개, 재정사업비 폐지 등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회복한 뒤 의정비를 인상에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또 “더욱 심각한 문제는 주민의견 수렴을 설문조사 실시 대신 공청회 개최로 결정한 점이다. 이는 공청회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가수 거미, 완주 찾는다

18일 완주문예회관에서 송년콘서트

가수 거미가 완주군을 찾는다. 17일 완주군은 18일 저녁 7시30분 가수 거미를 초청해 문예회관 2018 송년콘서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연말연시 따뜻한 가족애를 위한 완주문예회관 기획 공연이다. 가수 거미는 KBS <불후의 명곡>, MBC <나는 가수다>, <복면가왕> 등의 프로그램에서 다수의 우승을 차지하며, 자타공인 최고의 가창력을 인정받는 가수다.

드라마 OST의 여왕으로 불리고 있는 인기가수 거미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제패한 레전드 B-boy 출신으로 율라라세션의 리드 보컬을 역임한 군조의 환상적인 콘서트를 만나 볼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제공해 문화적 감성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연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다양한 공연을 제공해 문화적 감성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공연문화 활성화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제5회 완주곶감축제 성황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완주의 곶감을 만날 수 있는 '완주곶감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운주면에 열린 '제5회 완주곶감축제'에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2만5000여명이 축제장을 찾았다.

올해는 저온피해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입었음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일찌감치 매진을 일켰다. 완주곶감은 천혜의 햇빛과 신선한 바람으로 자연건조해 쫄깃하고 달콤함이 여느 곶감보다 뛰어나다.

축제의 주인공인 곶감과 함께 로컬푸드 1번지 완주에서 생산된 대추, 커피, 딸기, 더덕, 누룽지, 아로니아 등 다양한 농산물도 평소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곶감 무료 시식을 비롯해 곶감 가래떡, 곶감 백설기 시식회 등을 열어 감의 활용도를 알리고 능가별 품평회, 감 길게 깎기,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해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축제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준 군민과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대표 곶감축제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지적업무 우수기관 3년 연속 표창

전북도 주관 도내 14개 시군 대상 평가

김제시는 전북도 주관으로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한 2018년도 토지관리·지적·공간정보·도로명주소·지적재조사 분야의 업무추진 실적 종합평가에서 2016년 최우수기관, 2017년 우수기관에 이어 올해도 우수기관을 수상함으로써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김제시는 주요 평가대상인 공시지

가·지적측량·공간정보관리 및 도로명주소·지적재조사분야 평가에서, 토지관리 분야에서는 업무담당자의 정보제원을 준수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업무의 꾸준한 업무연찬으로 정밀조사 대상건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 부분에서, 지적측량 분야에서는 정확한 지적측량과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 및 지적측량 성과 가감 지역 관리분야에서, 도로명주소 분

야에서는 특별교부세 확보에 따른 인프라 확충분야에서, 지적재조사 분야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한 신규 전담인력 확보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안홍순 민원소통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절차이행, 처리기간 단축 등에 최선을 다했으며, 2019년에도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민원 처리를 통하여 토지행정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백구면 기초생활수급세대 주거환경개선 실시

김제시 백구면(면장 정관주)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센터장 정창섭)에서 주관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택에서 주거환경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번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김제시자원봉사센터 주관 하에 김제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거분과, 치우드림(정소대행업체/자활공동체), ㈜상우산업개발, 김제시사회복지협의회, 정리수

남 봉사단(어머니봉사단) 등이 함께 참여하는 치우드림 봉사단과 백구면이 협력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을 받고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이며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지체(하지)장애를 갖게 되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고 혼자서는 활동이 불편한 상태였다.

또한 집 안에서 가스버너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해 먹고 있었고 제대로 된 화장실이 없어 집 내·외부 환경이 매우 불결하여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시급한 상황이었다.

봉사활동에 나선 치우드림 봉사단과 백구면은 곰팡이가 슬어있고 다 뜯어져 문제가 되었던 도배지를 제거한 후 새 도배지로 교체하고 장판도 교체해 집 내부 환경을 깔끔하게 정비했으며, 이와 더불어 후원 물품으로 이불과 전기포트 및 식료품을 제공해 대상자가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소재 ㈜광스틸 전북지점 직원 40여명은 지난 15일에 용지면 애린양로원과 꽃꽃세상요양원을 방문하여 나눔 복지를 실천했다.

광스틸 전북지점, 연말 나눔 복지 실천

애린양로원·꽃꽃세상요양원 방문 생필품 전달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업단지 소재 ㈜광스틸(대표 박인화) 전북지점 직원 40여명은 지난 15일에 김제시(시장 박준배) 용지면 소재 애린양로원과 꽃꽃세상요양원을 방문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 복지를 실천했다.

이날 광스틸 직원들은 시설에서 요긴하게 사용 될 생필품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직접 청소를 돕고 말뚝을 하며 레크리에이션 등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광스틸 김충섭

상무는 “인간존중과 신뢰경영이라는 사훈에 맞게 매해 연말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하루를 보람차게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는 평소에도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삶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휴일까지 반납하고 봉사활동을 나와준 ㈜광스틸 전북지점 직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김제시에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정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